

“ 학교와 건협은 건전한 학생교육의 동반자!”

울릉도 초·중·고교 학생 건강 검사



3無의 섬 울릉도. 유난히 부유해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 않는 섬 울릉도. 그곳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내 학생건강검사와 부녀자 무료건강검사를 위해 건협 경북지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4일간을 분주히 뛰어 다녔다.

짧은 검진 일정 동안 학생 심전도, 빈혈, 간염검사, 부녀자 간기능, 간염, 자궁암, 심전도 검사 등을 위해 식사까지 거르면서 울릉도 곳곳을 누비는 건협 검진팀의 일정에 참여하면서 이번 두 검진 사업의 의의와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봤다.(이번호에서는 학생 건강 검진 사업을 소개하며, 다음호에 부녀자 건강 검진 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도둑, 거지, 독충이 없는 곳

서울에서 5시간. 그리고 포항에서 배를 타고 7시간 30분. 울릉도를 향하는 일행의 마음은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조금씩 들떠 있었다.

일몰의 광경을 배 안에서 맞은 후, 저녁 9시가 다 되어서 도착한 울릉도 도동항은 시원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후덥지근했지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오징어잡이를 나가는 배들의 분주함이 신기하게만 보였다.

한 때 우산국이라는 국가로 존재했던 울릉도는 현재 인구 1만 7천여명으로 오징어와 호박엿이 유명하고, 또 3無의 섬, 즉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고 독충이 없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한창 자라는 나이에 자기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저동국민학교 이인화 양호교사



일까 활짝 열려진 문들, 집밖으로 나와 있는 물건들, 여기저기 널려있는 어징어들의 모습이 도시 생활에 익숙한 기자의 눈에는 신기하게만 보였다.

적극적이고 희망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곳 사람들의 주된 생계수단은 오징어잡이죠.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해내면서 동시에 교육열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통털어 2천 8백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만 학교가 모두 18개교가 됩니다.』 울릉군 교육청 李鍾烈 교육장의 이야기다.

학교의 규모는 별로 크지 않지만 학생수가 적어 그만큼 교육의 효과면이나 환경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의 얘기였다.

『주민이나 학생들의 건강검사에 대한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희망적인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기쁘게 해야하는 일로 받아들이지요.』

“건강은 건강을,
학교는 교육을
담당하면서
건전하고 건강한
학생을 성장시키는
동반자”라고 李鍾烈
울릉군 교육청
교육장은 강조한다.



희망학생에게 심전도, 빈혈, 간염 등 검사

이번 학생 검진은 경북도 교육위원회와 해당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학생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 주셨고, 또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접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번 검진팀의 이 체철 경북지부 계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번 검진팀은 울릉국고, 울릉중, 울릉중고 등 초·중·고교 13개교를 돌아다니면서 심전도 300명, 간염 400명, 빈혈 300명 정도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중에는 총 검사자 수가 4명 뿐인 곳도 있습니다만, 비록 숫자가 적더라도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최선을 다해 검사에 임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한다.

청소년 성교육이 아쉽다.

한편 이번 검진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검사를 받은 저동국민학교의 이인화 양호교사는 주민과 학생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한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반응은 정말 좋습니다.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한 곳

이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개구장이 아이들의 검사 과정을 일일이 지켜보면서 그녀는, 『이곳에 온지는 얼마 안되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우선 청소년 성교육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곳의 가옥구조나 생계수단의 특수성 때문에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성적 문제는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교육이나 학생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양호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자라는 나이에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녀는 또, 『이번 검진은 여러가지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자라는 나이에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것을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라면서 『하지만 검사를 희망하지 않거나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하다면 모든 학생 대상의 무료 건강 검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협과 학교는 건전한 교육의 동반자

한편 李鍾烈 교육장은, 『교육이란 지식, 건강, 예절, 기술, 이 모두를 가르쳐 2세 국민을 훌륭히 키워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회의 요소요소가 협력적인 자세로 학생들 교육에 임하지 않으면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없지요.』라면서, 『건협은 일종의 교육 지원 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건협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학교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서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동반자의 관계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아직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는 울릉도의 자연과 아이들의 순박하고 활기찬 모습은 어딘가 닳아 있는 듯했다. 또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의 의지 역시 살아 숨쉬고 있는 듯 진솔하게 다가오는 것이 울릉도 학생건강검진을 마치면서 느끼게 되는 소감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보건교육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건강검사가
실현되기를 바란다.